



신입사원을 통해 전망하는 일본 인채업계의 미래 “평생 인채업만 하겠다” 60%

일본생산성본부가 6년째 전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2년 신입사원의 의식조사'에서 인채업종에 해당하는 결과에 따르면 인채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응답률은 60.1%에 달했다. 근래 10여년간의 최대치인데, 이는 불경기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젊은이들의 안정지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이 입사 3년 이내에 퇴사하는 이직률 또한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종신고용을 바라는 3명 가운데 1명이 수년내에 이직하는 것인데, 이는 신입사원들이 갖고 있는 '인채'라는 업무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글 | 김상호 객원기자

명암이 교차하는 인채업계의 이미지

이번 조사는 오사카부, 기후현 등 5개 지역의 인채공업조합의 협력으로 299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남녀의 비율은 5:4였으며 학력별 비율은 대학원 2%, 4년제 대학 51%, 전문대 16%, 고교 30%였다. '인채업계의 이미지'를 자유기술방식으로 받은 설문에서는 다양한 응답이 있었지만 '치열한 경쟁', '지루함', '긴 작업 시간'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편, '생활에 밀착되어 사회에 기여한다'든가 '아이디어 활용의 폭이 넓은 업종'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전환기의 인채업의 현실을 인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입사원들은 경쟁과열과 수익률 저하라는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인채업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는 생각보다는 새롭게 제후할 영역의 확대와 가능성에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채업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0.4%가 제조업이라고 답해 최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정보서비스업'이라는 응답은 19.5%, '크리에이티브업'이라는 응답은 19.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업태가 다양하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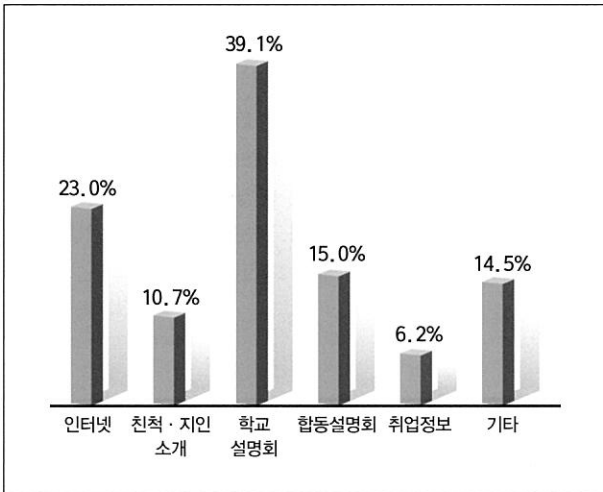
를데 없는 인쇄업의 특성에 따라 제조업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으나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정보서비스업, 크리에이티브업도 2위, 3위에 오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공업이라는 응답은 13.7%, 정보처리업이라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불경기 탓에 회사 설명회 감소

이번에 입사한 회사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답변(복수 응답)은 '학교의 구인'이 전년과 비슷한 39.1%로 최다 응답을 받았다. 이어 '인터넷'(23.0%), '친척, 지인의 소개'(12.3%), '취업설명회'(10.7%) 등의 순이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하면 '취업설명회'가 15.0%에서 5%p 가깝게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친척, 지인의 소개'는 9.9%에서 2.4%p 증가한 12.3%에 달했다. 한편, 인쇄업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33.8%가 관심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다소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은 51.1%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이 84.9%에 달했다. 이는 그 전년의 90.9%에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입사설명회 또는 면접이 입사할 회사의 사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저럭 이해가 되었다'는 응답이 63.2%, '잘 이해했다'는 응답이 22.3%에 달해 긍정적인 답변이 8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입사 회사를 알게 된 경로



입사 동기의 주된 이유는 '업무 내용 및 흥미'

'입사 동기'(복수 응답)는 '업무 내용'이 17.8%가 가장 높았으며 '친척·지인·교사의 추천'(15.9%)이 그 뒤를 이었다. '회사에 활기가 있어 지원했다'는 이색적인 응답도 11.2%에 달했다. 과거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안정성'은 크게 감소했으며, '회사의 활기'는



입사한 회사에 이끌린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복수 응답)은 '성취감 및 의욕'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협조성'이 15.9%, '사교성'이 13.6%였다

최근 수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례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안정성을 염두에 두어도 불구하고 입사 후에 일하기 쉬운가, 어려운가에 대한 여부와 회사의 분위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입사한 회사에 이끌린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복수 응답)은 '성취감 및 의욕'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협조성'이 15.9%, '사교성'이 13.6%였다. 주로 개인적인 부문에 해당하는 항목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기초 지식'이나 '전문 능력' 등 지식과 경력에 해당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신감은 그 비율이 낮았다.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직장환경 원해

업무에 대한 의욕과 기대감을 갖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입사와 배속을 마치고 난후에 부딪치는 문제는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이다. '회사에 바라는 것'(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6.3%가 '밝은 분위기에 일하기 쉬운 직장'을 원했으며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기 쉬운 업무'는 23.6%에 그쳤다. '높은 급여 및 수당'은 18.8%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영향을 미치는 '입사 동기'가 있다는 응답이 38.1%에 달했으며 '2살 정도 위의 선배가 있다'는 응답은 17.4%에 달해 60%에 가까운 신입사원들이 동료 또는 주위에 상담상대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이상적인 상사 및 선배 상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상담하기 쉬워야 한다'가 25.3%에 달했으며 '목표 및 업무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지시한다'는 23.8%, '부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낸다'(11.8%)의 순이었다. 인쇄회사의 경영자는 신입사원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면서도 상담과 지도의 장을 마련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회사에서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는 22.6%가 '영업'이라고 답했으며 '기획 및 크리에이티브'는 21.5%였다. '디자인 및 DTP'가 21.3%에 그쳤다. 지난 수년간 1위를 차지해 온 영업이 올해도 가장 하고 싶은 업무로 꼽힌 것이다.

초임의 격차 벌어지는 도쿄와 오사카

직장환경에 이어서 관심을 갖게 마련인 급여, 특히 신입사원이 처음 받는 '초임'은 지역, 학력, 직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격차가 있었다. 물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16~18만엔'이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22만엔'으로 19.4%에 달했다. 3위는 18~20만엔으로 16.3%여서 전년에 비해 2위와 3위가 역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신입직원들이 희망한 '이상적인 급여체계'는 '경험 및 연령 + 업적결과'가 가장 많은 65.5%에 달했다. '연공서열형'은 18.8%에 그쳐 3년전의 결과인 25.1%보다 6%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과중시형'은 14.7% 머물러 최근 큰 변동치를 보였다.

'경제적 안정' 바라면서도 '잔업'을 싫어하는 이중성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신입사원들은 '일을 하는 목적'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가 22.8%였으며, '경제적 안정'이 24.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뒤를 이어 '업무와 관련된 자기개발'은 12.8%, '업무를 통해 인간관계를 넓혀 가고 싶다'가 8.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잔업'에 대해서는 '돈이 안되더라도 잔업을 한다'가 46.3%

로 이전해에 비해 5%p 가량 올랐으며, '잔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전년의 13.8%에서 27.0%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돈이 되는 잔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25.6%를 차지했다.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 증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는 22.6%가 '영업'이라고 답했으며 '기획 및 크리에이티브'는 21.5%였다. '디자인 및 DTP'는 21.3%에 그쳤다. 지난 수년간 1위를 차지해 온 영업이 올해도 가장 하고 싶은 업무로 꼽힌 것이다.

현재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근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3.0%가 '정년까지'라고 답했으며 '6~10년'이 17.7%였으며 '3~5년'은 20.5%, '3년 미만'은 4.1%였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종신고용을 바라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다. 끝으로 어느 직위까지 승진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답변은 '사장'이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데 이어 임원이 10.7%, 부장이 11.0%였다.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29.1%에 달했으며 동기들과 비슷하게 승진하면 만족한다는 답변도 30.0%를 차지했다. ↻

출처 : JAGAT info 2012년 11월호